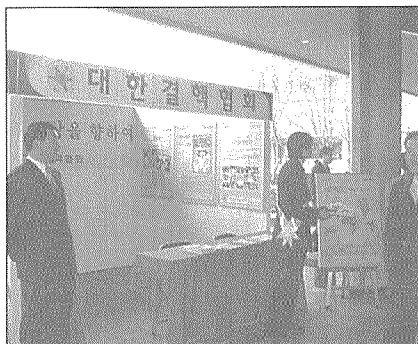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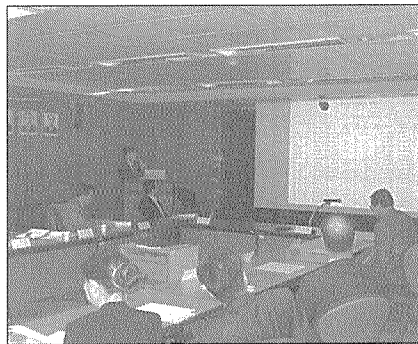
대한결핵협회, 제3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참여 및 결핵홍보

지난 4월 7일 제3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기념행사에 대한결핵협회 김성권 사무총장, 노재만 관리부장과 함께 관계 직원들이 참여하고 행사장소인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 입구에 결핵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판넬 전시와 결핵 홍보 전단지 배부하였다. 이번 보건의 날 행사는 “건강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Working together for health, WHO)라는 슬로건 아래 인류의 건강을 함께하기 위해, 일하는 보건의로 인력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조명하고 이들을 축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행사내용 전반에 보건의로 인력의 존엄과 가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결핵전문가 회의(Workshop) 개최

4월 18일(10:00~17:00) 결핵연구원 강당에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결핵연구원 주관으로 결핵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박병하 질병관리본부센터장, 배길한 결핵연구원장, 박승규 국립마산병원장, 공석준 국립목포병원장과 대학병원 결핵전문교수, 시·도 결핵관리 의사 및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각 부서 과장 등 전문가 그룹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 결핵퇴치 달성목표 및 추진전략, 민간 병·의원 치료효율접근법 등 결핵관리와 결핵퇴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대 국민적인 홍보추진 등 결핵퇴치 전략에 대한 과제별 토의가 이루어졌다.



2006년 사무국장, 관리과장 연석회의 개최

4월 21일(09:30~17:00) 대한결핵협회 본부 대강당에서 각 시·도지부 사무국장과 관리과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결핵연구원 사업전반에 대한 소개, 신규사업 개발에 대한 지부별 발표, 크리스마스 쉼 모금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 주요 사업별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향후 협회사업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회의에 앞서 2005년도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 우수지부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대전 청소년 결핵 노출

대전지역에 결핵환자가 집단 발생,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중략) 대전 동아공업고등학교가 지난 3월 31일 지역 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2~3학년 학생 767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 결과 검진 기관인 결핵협회로부터 3학년 학생 5명이 양성인 것으로 통보받았다.

- 대전일보 4. 8일자 -

완도 모 고등학교 학생 13명, 폐결핵 집단감염

전남 완도 모 고등학교는 지난 4월 6일 학생 신체검사 결과 2, 3학년 학생 13명이 폐결핵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 학생은 결핵균이 활성을 띠고 있어 전염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2명은 전남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이에 따라 3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등교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10명 가운데 전염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2주 동안 결핵약을 복용할 경우 전염가능성이 없다는 의료계의 소견에 따라 2주 동안 약을 복용한 뒤 등교하도록 했다.

- 노컷뉴스 4. 24일자 -